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은 어떤 교육적 기획에서 만나는가

김 종 구

서울시대안교육센터 기획팀장

〈요 약〉

근대 교육 체제는 아이들에게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을 앗아가 버렸을 뿐 아니라, 예술과 종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심각하게 왜곡시켰다. 특정 종교인을 양성하는 교육이나 미션스쿨의 교리 교육으로 학교에서의 종교성 고양은 왜곡, 혹은 축소되어 버렸고, 전문 연주자나 예술가 양성 위한 테크닉 교육만 남아 있고, 모든 아이들을 위한 예술적 깊이의 추구는 학교교육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따라서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은 근대 교육 체제를 넘어서는 데서 가능하다. 그런데 탈근대 교육 기획은 아직 탐구 중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우리의 과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탈근대적 교육 기획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들이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공간을 함께 만들고, 학교 운영을 함께 해나가는 자유로운 배움의 공동체를 토대로 한다. 이런 배움의 공동체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교육적 화두를 실천하는 공동체임은 물론이고, 그 교육적 실천의 중심축에는 근대교육이 몰아낸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의 자리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 예술적 깊이, 종교성 고양, 근대교육, 탈-근대교육, 대안교육, 배움의 공동체

I. 교육의 위기, 근대의 위기

‘교육의 위기’라는 말이 우리 주변을 배회한 지 꽤 오래되었다. 물론 플라톤이나 공자 시대에도 방종(放縱)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근심과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러한 시대적 근심은 교육에 대한 근심으로 이어졌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교육을 세세하게 언급한 것은, 그의 방대한 철학적, 정치적 기획 이전에 당대의 교육적 근심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 시대 혹은 공자 시대와 달리, 혹은 주희(朱熹)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와 달리 우리 시대의 교육 위기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육의 위기가 있어 왔다, 하고 가볍게 넘기기에는 시대적 징후가 꽤 심각해 보인다는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죄다 ‘교육의 위기’라고 수군거린다. 그런데 교육의 위기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딱히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질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이 오랫동안 파리를 틀고 있는 것을 교육의 위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나 국가경쟁력이 중요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의 질이 낮다고 편견을 주며 교육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편에서는 최소한의 도덕, 양심을 가진 사람을 키워 내는 데 실패한 게 교육의 위기가 아니냐고 목청을 높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으로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사기를 꺾어놓은 게 위기의 핵심이라고 단언한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교육의 위기를 진단하는 바로미터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교육 위기의 실체를 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는 근대성의 위기(modernity in crisis)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에서 이야기한 사람들의 무수한 단견(短見)들은 모두 근대성의 위기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토로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근대적인 대량생산 교육 체제가 만들어낸 병폐이며, 국민 교육을 통해서 국가경제력을 제고하겠다는 발상도 여전히 근대적인 발상이며, 특정 지식, 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둔 근대교육이 전인격적인 교육에 실패하는 건 너무도 자명한 일이며, 관료체제와 교육 노동의 틀 안에 갇힌 근대적인 교사상의 붕괴는 시간의 문제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교육의 위기에 대한 무수한 입론들이 있지만, 결국 근대교육의 종말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수렴된다.

이렇듯 근대성의 위기, 근대교육의 종말은 곧 근대 학교교육의 붕괴로 이어진다. 방금 ‘붕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건 결코 은유가 아니다. ‘학교붕괴’, ‘학급붕괴’는 지식인의 은유나 언론의 과격한 표현이기 이전에 우리의 적나라한 교육 현실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붕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토대 위에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새롭게 재구축될 ‘그 무엇’은 굳이 학교태를 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교육과정, 교사, 학생 같은 학교교육의 필수 구성인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마저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극단적인 탈학교 형태나 홈스쿨링까지 실험되고

있는 현실이니까 말이다.¹⁾

우리의 주제에 맞춰 새로운 교육 실험, 혹은 대안교육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의 속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근대교육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밝혀낸 우리 시대의 몇 가지 중요한 교육 키워드들을 짚어 보자.

II. 근대교육에 대한 비판을 통해 찾은 우리 시대 교육 키워드들

근대 교육의 위기 혹은 문제점을 그동안 학교교육이 중요시 여겨온 ‘지식’에 관한 이야기로 풀어 보는 게 어떨까 싶다. 기존의 근대적인 교육을 비판하고 나온 대안교육이라고 해도, 결국 ‘지식’을 다루는 것은 교육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말이다. 다만, 지식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일 테다.

1. 문제제기 능력을 지닌 지식

20세기 후반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였던 질 들뢰즈(Gilles Deleuze)는 학교교육의 허점을 ‘문제제기’ 능력을 상실한 낡은 지식에서 찾고 있으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혹은 공부를 통해서 정작 배워야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짚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참과 거짓이 단지 답에만 관련되어 있으며, 답이 주어저야만 참과 거짓의 문제가 시작된다고 믿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편견은 사회적이다. 왜냐하면 사회와 사회의 암호들을 전달하는 언어 행위는, 이미 만들어진 문제들을 마치 도시의 행정 서류철에서 꺼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는, 우리에게 아주 적은 자유의 폭을 허용하면서 그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편견은 어린 시절부터 학교교육에서 발생한 것이다. 문제를 주는 사람은 학교 선생이며, 답을 찾는 것은 학생이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종의 노예상태에 놓여져 있다. 진정한 자유는 문제 자체를 결정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거의 신적인 이 능력은 참된 문제를 창조적으로 출제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만큼이나 거짓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내포한다. 철학에서, 그리고 심지어 다른 것에서도 진실로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발견하고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사변적인 문제는 잘 제기하자마자 풀리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문제의 답이 숨겨진 채로, 말하자면 가려진 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석에서 답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답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다. 발명은 현

1) 한국 대안교육의 역사와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이념을 근대성 비판이라는 일관된 시각으로 정리한 책 중 대표적인 게 한 권 있다. 이종태, 『대안교육 이해하기』, 민들레, 2007.

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케 하는 것이며, 따라서 결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형이상학에서는 물론이고 이미 수학에서도 발명의 노력은 가장 흔하게는 문제를 낳게 하는 데 있으며 또 문제가 설정될 수 있는 용어를 창조하는 데 있다. 문제 제기와 문제 해결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다. 진정 위대한 문제는 그것이 풀릴 때 제기된다.²⁾

들뢰즈의 위와 같은 이야기는 ‘학교’에 대한 비판적인 지식인들, 가령 파울로 프레이리, 이반 일리히 등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들뢰즈 역시, 문제풀이 식의 지식 체제에 갇혀 있는 학교를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창조적인 능력이 중요함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가 대학입시를 위한 문제풀이식 교육에만 매달려 있다고 비판하는 건 이제 우리가 사는 현실에 그 어떤 충격도 주지 못하는 좀 싱거운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러니까 판에는 창조적인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몇몇 교사들의 신선한 시도들마저도 사실은 얼마나 따분한 지식의 덩어리에 짓눌려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논쟁점을 옮기는 게 필요하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학교에서 새로운 수업이라고 시도되고 있는 것들, 즉 토론식 수업, 고전 읽기 수업, 글쓰기 수업, 다양한 실험 학습 등도 들뢰즈의 문제제기로 보면, 문제 풀이식 수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에 의하면 교사는 이미 주어진 답을 가지고 있으며, 아이들의 학습 행위는 창조적인 지식 생산과는 무관한, 중간 언어(브루너가 말한 middle language)를 익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암기식 수업보다 수업 시간이 조금 더 드라마틱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무력하게 하고, 아이들의 지성을 빈곤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자유는 문제 자체를 결정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거의 신적인 이 능력은 참된 문제를 창조적으로 출제하는 것을 내포하는 것만큼이나 거짓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내포한다”는 들뢰즈의 말은 교육에서의 조금 더 과격한 내던짐이 필요함을 적시해 준다. 문제제기 능력은 ‘온건한 교수법’ 속에서 가르쳐질 수 없다. 그건 세상의 존재에 다 의문을 붙일 수 있는 일종의 도발적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적 태도는 예술가의 태도와 무척이나 닮아 있으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고 일갈했던 선사(禪師)의 태도와 무척이나 닮아 있다.

2. 몸의 지식 혹은 손의 지식

들뢰즈의 선배였던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도 평생 근대성의 뿌리와 싸움해 온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근대는 인간 소외를 극단화한 시대이다. 그의 유명한 키워드 ‘존재 망각의

2) Gilles Deleuze, *Le Bergsonisme*, 김재인, 『베르그송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년, 12~13쪽.

시대'는 특히 이 '근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보는 존재 망각에 의한 소외는 맑스나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생각하는 소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것은 인간이 존재의 본질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소외라서 여타의 소외와는 그 차원을 달리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소외는 아주 매혹적이다. 인간은 자신의 소외를 아주 매혹적인 사물, 사건들에 몰입함으로써, 존재 망각의 공동 협력자들인 대중들(das Mann)의 호기심(das Neugierig)과 잡담(das Gerede)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das Niemand, 익명적 존재)로 자신을 깨끗이 잊고 지낸다.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하지 않는 것, 하이데거가 볼 때 가장 큰 위기는 여기에 있다. 물론 하이데거가 말한 질문은 대중들의 호기심과 잡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의 질문이 아닌, 존재의 심연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을 말한다. 그리고 그런 질문은 제대로 배워야만 가능한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본질에서부터 말을 건네고 있는 그것에 우리의 작위와 무위를 응대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그렇게 응대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떠나야만 한다. 우리가 사유하는 법을 배울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접어든 길 위에서 성가신 물음들을 경솔하게 회피하면서 우리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찾아질 수 없는 그것을 구하는 그러한 물음들에 진입해야 한다. 특히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언제라도 배운 바를 버릴 때, 바로 그때에나 비로소 배울 수 있을 뿐이다. 우리와 관계된 경우에서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 온 사유의 본질을 뿌리째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사유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사유하는 법을 속속들이 알아야만 한다.”³⁾

불행히도 근대적인 학교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우리에게 존재의 심연을 건드리는 질문'을 제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도리어 근대적 학교는 계산 가능성과 편리성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재단하는 법을 가르쳐 왔다. 우리 눈앞에 있는 존재자에 대해 사려 깊은 태도를 취하는 행위는 비생산적이라고, 몽상이라고 편찬을 받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위의 하이데거의 말은 우리에게 근대적 학교에서는 배워 온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사유하는 법을 배우라는 충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하이데거에게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가 예를 들고는 있는 '사유하는 법'이 손의 움직임, 손짓과 유사하다는 것인데, 우리 시대 대안적인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다.

가구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만드는 법을 배우는 도목수가 배움을 익힐 때, 작업 도구 사용의 노련미만을 익히는 게 아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들의 전래적인 형태에 관한 지식만을 습득하는 게 아니다. 참된 도목수가 되려면 그는 무엇보다 목재의 다양한 성격에, 목재에 잠들어 있는 형상에, 요컨대 감추어진 본질의 충만함을 가지고 인

3) Martin Heidegger, Was Heisst Denken?, 권순홍, 『사유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2005, 57~58쪽.

간의 거주지 안으로 불쑥 들어온 목재에 자기 자신을 응대시켜야만 한다. 목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수공업(Handwerk)의 전 공정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목재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없다면, 수공업은 공허한 몸놀림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공허한 몸놀림에 종사한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되게 마련이다. 모든 수공업은, 나아가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항상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유도 예외가 아니고, 시를 짓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도목수가 배울 때, 목재나 목재로 된 것들에 자신을 응대시키는 경지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스승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중략)... 아마도 사유란 가구를 만드는 일과 같은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사유는 손으로 하는 일이다. 손에는 그 고유의 쓰임새가 있다. 손은, 통속적인 견해에 따르자면, 우리들 몸의 한 부분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손의 본질이 움켜잡는 몸의 한 기관으로 규정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으로부터 설명되어서도 안 된다. 예컨대 원숭이도 움켜잡는 기관은 갖고 있지만, 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손은 동물의 앞발, 새의 갈고리 발톱, 동물의 엄니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온갖 움켜잡는 기관들과 본질의 심연에서 차이가 난다. 오로지 말하는, 즉 사유하는 인간만이 손을 갖고 있으며, 손으로 하는 일을 능수능란하게 관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손의 일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하다. 손은 움켜잡고 붙잡고 누르고 찌르고 하는 것만은 아니다. 손은 내뻗어서 사물들을 맞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손은 다른 사람의 손앞에 내뻗어서 그의 손이 내 손을 맞아들이도록, 즉 악수하기도 한다. 손은 쥘다. 손은 나른다. 필시 손은 인간은 기호인 까닭에 기호를 그린다. 또 우리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한다. 이러한 손짓은 인간을 거룩한 순결로 인도한다. 이 모든 것이 손이자 손의 고유한 일이다. 우리가 보통 수공업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그러한 손의 일에서 연유한다. 대개 우리는 손의 일에 대해서는 수공업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짓은 언어를 가로질러서 어디에나 스며들어가는데, 그것도 인간이 침묵으로써 말할 때 가장 순수하게 스며들어간다. 그러나 인간은 말하는 한에서만 사유하게 마련이다. 형이상학이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듯이, 그 반대는 아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서 진행되는 손의 갖가지 동작에는 사유의 요소가 배어 있거니와, 또 사유의 요소 안에서 손동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손의 모든 일은 사유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서 사유 자체는 가장 간단한 인간의 손의 일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특별히 적절한 때에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가장 어려운 인간의 손의 일이 된다.⁴⁾

물론 근대적 사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위와 같은 하이데거의 이야기는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하이데거는 오랫동안 근대 산업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실존주의 철학자’ 정도로만 호출되어 왔고, 그의 후기 사유는 베일에 싸여 있었

4) Martin Heidegger, 앞의 책, 131~132쪽.

다. 그러던 것이 근대를 넘어 탈근대로 들어가는 즈음 비로소 사람들은 신비에 싸인 하이데거의 후기 철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한 하이데거나 메를로-퐁티(M. Merleau-Ponty) 같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몸의 언어와 느낌 같은 게 새삼 중요해지고, 몸을 통한 사유, 육화된 지식의 의미 등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하이데거의 생각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동양의 고전들에서는 이런 깨달음들이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3. 안목 혹은 감식안

동양적 상상력의 보고인 『장자』는 근대를 넘어선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캐내고 싶은 우리들에게 흥미로운 영감을 많은 던져 주는데,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양생주(養生主)’⁵⁾편에 나오는 도통한 포정의 이야기는 곱씹어볼 대목이 많이 있다. 그는 소 잡는 일에 탁월한 안목을 지녔으며, 이런 그의 탁월함은 우주의 도를 꿰뚫는 데까지 나아간다.

포정이 문혜군을 위해 소를 잡은 일이 있다. 손을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짓누르고,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에 따라 소의 뼈와 살이 갈라지면서 서걱서걱, 빠극빠극 소리를 내고, 칼이 움직이는 대로 싹둑싹둑 울렸다. 그 소리는 모두 음률에 척척 맞아, 좋은 음악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았다. 문혜군이 그것을 보고 아주 감탄하며 “아, 훌륭하구나. 재주가 어찌하면 이런 경지까지 이를 수 있느냐?”고 물었다. 포정은 칼을 놓고 말을 이어갔다.

“제가 반기는 것은 도입니다. 손끝의 재주 따위보다야 우월한 것입죠.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소뿔이었으나, 3년이 지나자 이미 소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정신으로 소를 대하고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습죠. 눈의 작용이 멎으니 정신의 자연스런 작용만 남습니다. 천리를 따라 소가죽과 고기, 살과 뼈 사이의 커다란 틈새와 빈곳에 칼을 놀리고 움직여 소 몸이 생긴 그대로 따라잡니다. 그 기술의 미묘함은 아직 한 번도 칼질의 실수로 살이나 뼈를 다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솜씨 좋은 소잡이가 1년만에 칼을 바꾸는 것은, 살을 가르기 때문입죠. 평범한 보통의 소잡이는 달마다 칼을 바꿉니다. 무리하게 뼈를 자르니까 그렇습죠. 그렇지만 제 칼은 19년이나 되어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날은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저 뼈마디에는 틈새가 있고,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것을 틈새에 넣었으니 널찍하여 칼날을 움직이는 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이 되어도 칼날이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죠.

문혜군이 말했다. “훌륭하구나. 나는 포정의 말을 듣고 참된 삶을 누리는 길을 터득했다.”⁵⁾

이런 『장자』의 이야기가 가진 담론 구조는 사실 근대적 시기에 가장 배척받았던 부분이

5) 莊周, 「養生主」, 『莊子』.

다. 그래서 지금도 (특히 동양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이런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텍스트를 접할 기회를 갖기 힘들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단순히 상상력의 산물로 취급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상상력’이라는 말도 근대적 맥락에서 볼 때는 ‘허구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사실, 포정의 이야기는 다소 과장법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간혹 접하게 되는 몇몇 도제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을 대하는 태도, 교육을 대하는 태도와 일치한다. 그리고 근대교육의 문제를 자각한 사람들이 이런 ‘도제교육’에 주목하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이기도 하다.⁶⁾

여하튼, 장자가 말한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깨달음은 근대 과학 지식의 생산 시스템을 비판한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의 이야기에서도 감지된다. 그가 말한 감식안(Connoisseurship)은 근대 과학의 허점을 비판하는 키워드이자, 새로운 지식의 조건을 지시하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예는 처방으로 전해질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방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본보기를 통해서만 대가에서 수련생에게로 전해질 수 있다. 이는 확산 범위를 개인적 접촉에 한정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예가 폐쇄적으로 한정된 국부적 전통에만 살아남는 경향이 있음을 안다. …(중략)… 한 세대 동안 사용되지 않은 기예는 모두 망각된다. 이러한 예는 몇 백 개에 이르는데, 기계화 과정이 이 망각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러한 망각은 보통 비가역적이다. 반쯤 알려진 채 200년도 훨씬 전에 진부한 문제로 판명난 스트라디바리우스 류의 바이올린을 재생산하려는 끝없는 노력 — 현미경 사용 방법과, 화학, 수학, 전기학으로 무장한 — 을 보는 것은 슬픈 일이다.

본보기에 따라 학습하는 것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스승을 따르는 이유는 스승의 사물처리 방식을 신뢰하기 때문인데, 이는 여러분이 그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없을 때도 그러하다. 제자는 스승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그가 예시할 때 그의 노력을 본 때 스승 스스로도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포함해 무의식적으로 기예의 규칙을 수집한다. 이와 같이 감추진 규칙은 오직 스스로 무비판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동화될 수 있다.

…(중략)… 의학 진단 전문의의 솜씨는 인식술과 같은 행위술이다. 검사하고 음미하는 기예는 수영이나 자전거를 타는 기예처럼 좀 더 지속적인 근육 활동적 기술을 요한다. 솜씨와 같은 감식력은 오직 본보기를 통해서만 교통될 수 있지, 규율을 따라 교통되지는 않는다. 전문적인 와인 감식가가 되기 위해, 수많은 종류의 차의 혼합물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의학적 진단 전문의처럼 되기 위해, 대가의 지도 아래 긴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사가 어떤 증상, 예를 들어 폐동맥의 두 번째 박동의 강도를 인지할 수 없다면,

6) 도제교육이 가진 교육 원리를 잘 정리한 논문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성욱·신기현, 「판소리 전승사에 나타난 도제교육의 원리」, 『교육원리연구』 5-1, 서울: 교육원리연구회, 2004, 215-257쪽.

이 증상은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들에 관한 서술을 독해하는 데 아무 소용도 없다. 그 의사는 개인적으로 그 증상을 알아야 하며, 이를 청진법으로 여러 사례들을 통해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사례들에 따라 어떤 증상은 나타나며, 다른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배우게 되는 것은 권위를 좇아서이다. 이는 그가 그 사례들 간의 차이를 완전히 깨닫고 자신의 지식을 전문가에게 흡족하게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 (중략) ... 화학, 생물학, 의학 생도들이 실습코스에 상당한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이러한 과학이 대가에서 전습생으로 솜씨와 감식안의 이전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이는 앞의 기예가 과학의 심장부에서 어느 정도로 세세히 설명 불가능한가에 대한 인상적인 증명이 된다.”⁷⁾

근대 과학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지식 생산 행위를 꼼꼼히 관찰한 폴라니의 지적은 곧 교육에서 ‘솜씨와 감식안의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준다. 그러니까 도공(陶工)이나 판소리 같은 전통의 전수가 일어나는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가장 근대적인 실험실 공간에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솜씨와 감식안의 전수’라는 것이다. 나아가, 솜씨와 감식안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교육이 발화적인 언어(verbal language)와 매뉴얼에 의존하는 게 한계가 있음을 밝혀 주는 것과 동시에, 인터넷 공간에 정보가 넘쳐나지만 여전히 교사와 학생이 일대일 관계가 교육의 핵심임을 새삼 일깨워 준다. 그렇다면, 대안교육에서 ‘인턴십(internship)’과 멘토링(mentoring)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닌 것이다.⁸⁾

III. 대안교육의 피할 수 없는 화두,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교육이 간과한 혹은 지금 우리 시대가 숙고해야 할 지식의 성격 혹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문제제기적 능력을 가진 지식, 몸의 지식 혹은 손의 지식, 그리고 안목 혹은 감식안이 그것인데, 이런 새로운(혹은 근대를 통해서 잃어버려 온) 지식의 성격은 곧 우리 시대의 새로운 교육운동인 대안교육의 주요 키워드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식이 중요하고, 지식의 성격이 변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금 모색하는 대안교육은 지식으로만 환언불가능하다. 여기에 예술과 종교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왜냐하면, 이 역시 근대성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데, 근대성이야말로 ‘예술’과, ‘종교’를 왜곡, 형해화시키고, 교육에서 ‘예술성’과 ‘종교성’을 몰아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예술성과 종교성의 역할을 다시금 검토하는 것은 역으로 ‘예술’과 ‘종교’의 본질을 되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7) Michael Polanyi, Personal Knowledge, 표재명 외, 『개인적 지식』, 아카넷, 2001, 92~95쪽.

8) 인턴십은 흔히 오해하고 있듯이 직업교육의 한 과정이 아니다. 인턴십은 관계에 대한 훈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생한 세상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며, 지식의 쓰임새를 익히는 것이다. 인턴십과 멘토링의 속살을 이해하는 데는 다음 책이 아주 적합하다. Eliot Levine, One kid at a Time: Big Lessons from a small school, 서울시대안교육센터, 『학교를 넘어선 학교』, 민들레, 2004.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술교육’, ‘종교교육’이라는 정체 불명의 어휘를 폐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예술과 종교, 그리고 교육이 애초에 그 성격상 인간의 총체성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한다면, 예술교육이라는 이름이 예술뿐만 아니라 교육을 얼마나 왜곡시켜 왔는지, 종교교육이라는 이름이 종교뿐만 아니라 교육 그 자체를 얼마나 왜곡시켜 왔는지를 기억하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전문가를 양산하는 테크닉만 발전시켜온 역사, 종교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해 온 선교의 역사 혹은 특정 종교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교육의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긍정할 수 있을까. 이런 교육이 또한 교육의 본질과 얼마나 벗어나 있는 것일까? 이걸 혹시 플라톤적으로 예술교육(혹은 종교교육)의 이데아가 있고, 단지 현실의 예술교육(혹은 종교교육)이 왜곡되어 있을 뿐이라는 식의 질문으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따라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종래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술교육’과 ‘종교교육’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임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1. 교육은 예술적 깊이를 추구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교육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고민하고 있는 대안교육은 국가 주도의 근대 대중교육과 싸우고 있다. 근대 대중교육의 표면적인 특징을 ‘고루함’, ‘재미없음’, ‘엄숙주의’, ‘숨막힘’, ‘천편일률’ 등의 키워드로 진단해 볼 수 있다. 단편적인 지식이나 입시위주의 교육 같은 걸로 심각하게 따지지 않아도, 우리는 근대 대중교육의 문제를 학교만 한번 방문해 보아도 단박에 알 수 있다. 표지만 보아도 벌써 생기가 없고 답답해 보이는 ‘교과서’들, 판박이 꼴의 운동장과 학교건물, 일렬로 정렬한 고만고만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 동시대의 무의식을 드러내주는 지표인 영화제목을 한 번 일별해 보아도, 근대적 학교가 얼마나 생기가 없는 곳인지를 알 수 있다. ‘여고괴담’, ‘말죽거리잔혹사’,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친구’, ‘몽정기’... 한마디로 끔찍하다.⁹⁾ 문제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를 성찰할 수 있는 감식안마저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이다. 교사든, 아이들이든, 학부모들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위의 영화들을 낄낄대면서, 혹은 오락거리로 감히 즐길 수 있는 내면 성밖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는 예술이 근대적인 대중 교육에서 사라져 버렸으므로. 이리하여 예술은 전문적이고 특화된 교육의 영역으로 밀려나 버렸고, 삶에 천착한 예술적 깊이 또한 사라져 버렸다. 우리 교육 속에 예술이 살아 꿈틀거리려면,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삶이 생생해지려면, 교육에서 예술은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삶의 자리로 돌아온 예술, 상처 입은 자아를 치유

9) 한국 대중 영화에 드러난 한국의 근대적 학교 풍경에 대한 무의식을 논한 글로는 김영진의 글이 있다. 김영진, 「학교, 한국영화의 악몽」, 『중등 우리교육』, 2001년 2월호, 40-41쪽.

하는 예술, 분과적 지식의 통합으로서의 예술 등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세 가지 측면은 서로 얹혀 있다.

하자센터 내에 대안적인 예술(교육)공연단체인 ‘노리단’이 있다. 얼마 전 노리단에서 『일하며 논다, 배운다: 노리단 이야기』(민들레, 2007)는 제목의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풀어가 보려고 한다. 논지 전개를 보다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선 노리단이 어떤 곳인지 노리단 홈페이지(<http://noridan.haja.net/asp/about05.asp>)의 ‘역사’ 부분을 재구성해 보았다.

서울시가 연세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하자센터에는 빅 프로젝트의 하나로 노리단이 있다. 처음에는 작곡가, 연극배우, 사운드 엔지니어, 래퍼, 재즈 댄서 등 2~30대 문화 작업자들과, 각 예술 장르와 미디어 작업 또는 인문학적 학습을 진행하던 10대들이 모여 빅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다. 총 15명으로 구성된 팀은 나이도 서로 달랐지만 직업적 프로페셔널부터 아마추어적 관심사 또는 체험 학습 차원의 청소년까지 수준도 다양했다. 이들은 토론과 조사 끝에 벤치마킹 모델을 선택했다. 바로 생태주의 철학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호주의 독창적인 년버벌 퍼포먼스 그룹 허벌이다.

허벌(www.hubbubmusic.com)은 문화예술 교육과 장르 통합적인 공연 예술을 유기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호주의 독창적인 퍼포먼스 그룹이다.

빅 프로젝트 팀은 허벌과의 교류를 통해 음악과 무용이 있고, 마임과 연극이 있으며, 즐거운 스포츠 활동이 모두 어우러진 공연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의 모든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체험 학습하는 워크숍이 무엇인지도 알았다. 이러한 요소는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욕구하는 모든 세대와 계층 및 지역 사회에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다. 미술, 음악, 체육, 무용 등의 서로 나뉘어서 ‘죽은 학습’이 되는 예체능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의 본래 취지에 맞게 통합적이고 사회적인 순환에 들어맞는 모델이 절실하다.

특히 허벌을 통해 힌트를 얻은 문화예술의 생태주의적 철학과 방법론은 청소년과 일반인 모두에게 자아 정체성과 잠재력을 계발하는 좋은 자극과 계기가 된다. 산업 자재나 생활 용품을 뒤져서 소리와 화음을 빚어내는 예술품으로 바꾸는 과정과, 굳어버린 자기 몸을 두드려서 다양한 리듬과 공동체 퍼포먼스를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가 흥미로운 활동이어서 외부적인 보상과 동기 부여가 없어도 내재적인 충족과 활력을 통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과 문명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서 생태에 대한 깨달음의 자연스러운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노리단은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 교육이 갖는 낙후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고, 성공한 공연예술일수록 청소년이나 시민의 문화적 실천과 괴리된 채 화려한 불거리에 머

물려 있는 현실에 도전하겠다는 문제의식의 표출이다. 노리단은 감수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체험 중심의 통합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전개하겠다는 꿈과, 지속적인 실험과 공연을 통해 스톱프와 난타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하이브리드 넘버벌 퍼포먼스를 선보이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나아가 교육과 공연을 병행하는 문화예술 단체 또는 회사로서 성공적인 사회 진출의 사례가 되고자 한다.¹⁰⁾

1) 예술을 삶의 자리로!

이제는 조금 싱거운 슬로건이 되어버렸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온 예술’은 우리 시대의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다. 특히 교육 속에 예술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화두일 것이다. 노리단이 펴낸 책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 슬로건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술의 뜻은 원래 간명했다. ‘예’는 씨앗을 심는 것이고, 술은 길을 내는 것이다. 씨앗을 심고, 길을 내는 것은 삶의 영원한 과제이다. 이렇듯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라는 뜻에서 예술이라는 말이 나왔다. 다른 언어권의 예술도 같은 유래에서 나왔다. 다른 언어권의 예술도 같은 유래를 갖고 있다. 예술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책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실천하는 행위를 뜻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활동이다. 예술은 누구나 저마다 자기 삶의 문제를 도출하는 다양한 지혜인 것이다.

특히 공동체에서 예술은 삶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특별한 체험이었다. 살다보니 문제가 생겨서 울고 웃는 것, 그 기분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것, 이러한 계기를 승화시켜서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개인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 예술의 권능이었다. 그렇게 더불어 삶을 배우는 것이 예술이었다. 옛날 작은 공동체들은 삶과 죽음을 감사하고 슬퍼하고 용기를 냈다. 그것이 예술이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공동체 안에서 예술을 따로 준비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그는 공동체의 위임을 받아 그들을 위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예술을 펼치고 나누었을 것이다. 위임이 지속적인 분업이 되고, 전문가의 영역이 되고, 특권이 되는 과정을 통해 예술은 공동체와 사람들의 삶에서 차츰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예술은 삶 밖으로 나가서 삶이 닳아가야 하는 외부적인 것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삶의 외부로 나가서 삶을 지시하는 예술이 되면, 다양한 삶의 공동체적 관계 바깥에서 따로 존재하는 예술이 되고 나면, 오직 미적 기술을 뜻하는 예술이 성립되기 한결 쉬워진다. 타고난 재능, 천재적 기질, 웅장한 독백으로 둘러싸인 예술은 사람들 저마다 지닌 삶의 문제와 분리된다.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상호참여하고 협력하는 공동체적 지혜를 압도한다. 이제 나의 예술은 그의 행위를 지켜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그런 감상과 구경에 필요한 미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예술교육이 되고, 예술교양이 된다.¹¹⁾

10) 노리단 홈페이지(<http://noridan.haja.net/asp/about05.asp>)에서 ‘역사’ 부분 참조.

11) 김종휘 외 씀, 『일하며 논다, 배운다: 노리단 이야기』, 민들레, 2007, 22~23쪽.

‘노리단’은 책의 제목처럼, ‘일’과 ‘놀이’, 그리고 ‘배움’이 한데 어우러지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단원들에게 노리단은 ‘일터’이자 ‘놀이터’이자, ‘배움터’인 것이다. 사실 이런 발상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 틀을 깨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아직도 일터는 일터이고, 놀이터는 놀이터일 뿐이지 않는가? 그런데 노리단은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통합된 삶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몇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면, 근대 이전에 누렸던 삶의 통일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런 점에서 노리단은 다른 대안교육 기관들처럼 ‘시대적 실험’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중이다.

삶의 자리로 돌아온 예술, 여기서는 그 누구도 예술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온 예술은 그 자체로 통일성을 갖추게 된다. 이런 노리단의 정신, 혹은 태도는 곧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이분법, 배우와 관객의 이분법을 허물어뜨린다. 아우라가 가득한 예술작품에도 판지를 건다. 이들의 슬로건처럼 ‘두드리면 모두 소리가 되’기 때문이고, 음악은 콘서트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득한 것이다. 노리단의 이러한 실험은 단 한 사람도 예술로부터 소외되지 말 것,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물론 이 말은 누구나 자기 삶을 즐길 수 있는 주체라는 걸 새삼 일깨워 주는 것이다. 실제로 노리단뿐 아니라, 많은 대안학교들은, 나아가 공교육에서 새로운 교육적 실험을 하고 있는 교사들은 유희의 예술, 예술의 편재성을 실천하고 있다.¹²⁾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삶의 자리로 돌아온 예술’이라는 슬로건은 전문 연주자들이 오랫동안 갈고닦아서 만들어낸, 예컨대 ‘말리 교향곡’의 위대성을 폐기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근대적 시기에 천재적인 음악가들이 발전시킨 건 그것대로 소중하다. 그렇다면 근대 교육적인 방식을 넘어서 이러한 소중한 문화적 유산을 어떻게 교육의 장으로 끌어오는 게 좋은지는 더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2) 자아의 치유와 성장을 이끄는 예술

삶의 자리로 돌아온 예술은 인간을 성장시키고, 치유하는 힘이 있다. 바꿔 말하면, 상처 입은 인간을 치유하지 못하고, 성장시키지 못하는 예술이 과연 예술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예술과 긴밀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위대한 문학작품이나 위대한 음악, 위대한 영화를 보고 삶이 고양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고양된 느낌을 받은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고양된 느낌을 장기간 지속하고, 몰입해서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나’로 도약하는 체험을 한 경우는 더 더욱 드물 테다. 그렇다면 역으로 ‘몰입’과 ‘도약’은 예술을 통해 교육이 도달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17세 노리단 단원 겐의 이야기는 예술을 통해 한 아이가 어떻게 몰입할 수 있었고, 도약할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나마 보여 준다.

12) 대표적인 결과물로는 다음의 책이 있다. 김인규, 『화장실에서 놀자: 학교에 대한 즐거운 상상』, 디딤돌, 2004.

노리단의 악기는 걸보기엔 이게 무슨 악기인가 싶을 정도로 육중하고 투박한 느낌이 었다. 소리놀이터 첫 시간에 플라스틱 관과 나무토막, 자동차 바퀴를 잘라놓고 악기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두드리라고 했다. 약간 당황한 마음으로 악기를 쳤는데,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반응했다. ‘통~’하면서 나는 맑은 소리에, 거짓말이 아니라, 기절할 듯 이 놀랐다. 이런 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게 신기하고 내가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이 신기 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강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더 세게 치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구 두드려댔다. 처음으로 신나게 악기를 연주했다. 지금 생각하면 내 마음이 반응했던 것은 바로 해방감과 자신감이었다. 노리단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생각부터 바뀌 버렸다. 노리단 악기들은 마음대로 두드리기만 하면 멋진 소리가 나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같이 두드리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음악이 된다.

이것들은 내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음악에 대한 욕구를 일깨웠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음악을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게 해 주었다. 몸벌레와 악기제작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약간 뚱뚱했던 나는 내 몸에 자신이 없어서 최대한 가릴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녔다. 그런데 몸벌레를 하면 창피하게 생각했던 내 몸이 나만의 멋진 악기로 다시 태 어났다. 또, 내 손으로 우리가 연주하는 악기를 같이 제작한다. 산업폐자재와 주위에 흔히 버려져 있던 쓰레기가 멋진 악기로 살아나는 과정을 경험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악기로 보이고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워크숍을 들으면서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나를 표현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어졌고 표정이 밝아졌다. 예전보다 활발해졌으며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이 노리단 워크숍의 제일 큰 매력이 아닐까 싶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음악은 모두가 어렵지 않게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것도 복잡한 이론이나 지식 없이 우리의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배운다.¹³⁾

기존의 학교를 다니지 않고, 특별히 대단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 할 소년은 노리단이라는 새로운 공연예술단을 통해 놀라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치유되고 있음을, 성장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

3) 분과적 지식의 통합으로서의 예술

근대적 지식은 곧 ‘분과적’ 지식이다. 그런데 분과적 지식에 대한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에서도 학문간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라는 말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으며,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도 애초부터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최근 대입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논술도 ‘통합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변모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그 시대의 흐름은 읽었으되, 여전히 그 갈 길은 멀게만 보인다. 그것은 학문의 중심, 지식의 중심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13) 김종휘 외, 앞의 책, 113~115쪽.

고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는 한두 가지 질문이면 족하다.

기존의 학교교육이 장안의 화제인 네이버의 '지식인'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자동화와 아웃 소싱으로 단순 업무를 없애는 기업들에게 정말 필요한 인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일까?

그건 다른 아닌 '예술적 태도'와 '심미안'이 아닐까? 단편적인 지식을 우리 몸속에 온전히 육화시켜 몸의 지식, 창발적 지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직 예술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쪼개어진 예술마저도 몸을 통해서 통합되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우리 이야기의 한 축인 노리단도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리단을 소개할 때 음악 그룹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노리단은 연극, 체육, 무용, 음악, 기술, 사회영역의 통합체라고 말하면 어렵게 생각한다. 그래서 음악 그룹이라고 말해놓고 대화를 시작한다. 하지만 노리단을 음악 그룹이라고 규정하는 대신에 문학과 연극과 체육과 무용과 기술 그룹이라고 각각 바꿔 말해도 다 말이 된다. 이는 음악이 여타의 영역과 분리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옛날 작은 공동체에서는 음악이 혼자서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음악은 춤과 연극과 무술과 예배와 음식과 명상 등이 통합되어 있는 삶의 체험이자 양식의 일부였다.

하지만 근대의 교육제도와 사회체제는 전체로 연결된 삶을 쪼갠 장르와 전문 영역으로 분리하고 잘게 쪼개서 교과목을 완성했다. 이 때문에 음악과 체육과 무용은 서로 별개의 장르가 되었고, 예체능과 국·영·수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다. 학생들은 성장기 내내 학교에 다니면서 음악과 체육과 무용을 비롯한 여러 과목을 공부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통합되어 체험되지는 못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그런 교과목들은 몸체가 없어진 것처럼, 쓸모가 없어진 부품들처럼 인생의 소각장으로 직행하고 만다.

손은 다섯 개의 손가락이 아니라 네 개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다. 아마 손가락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관계의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어쨌든 손을 사용할 때 손가락 사이의 관계는 복합적이고 동시적이며 전체적으로 작용한다. 노리단은 주로 음악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삶의 다양한 관계들을 이해하는 통로이자, 그 관계를 전체적인 패턴으로 감지하고 반응하는 통합된 체험을 하는 것이다. 분리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노리단에서 음악은 체육이자 무용이자 연극도 되고 기술도 되는, 이 모든 것이 다양하게 얹혀서 체험된다.¹⁴⁾

그런데 노리단은 결코 돈키호테가 아니다. 이들은 지금도 즐겁게 일하며, 놀며, 배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이, 그 방식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큰 그림에서 보자면 대안학교들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많은 대안학교들이 학생들에게 졸업을 위해서 예술적인 과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¹⁵⁾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의 삶 속으로 들어간

14) 김종휘 외 씀, 앞의 책, 29~30쪽.

예술은 결코 자기 충족적이지 않다. 그것은 소통과 관계맺기, 치유와 돌봄을 위한 예술인 것이다. 노리단은 자기들이 예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이제는 학습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 여럿이 함께 일하는 능력, 관계를 읽고 대처하는 능력, 타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능력,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능력, 돌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길러준다. 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길러주기도 한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다.¹⁵⁾

2. 교육은 종교성 고양을 추구한다

근대에 들어 종교는 공교육에서는 완전히 추방되어 버렸으며, 각 종교들의 사원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교육 의례로 고착화되어 버렸다. 모든 인간이 영성을 가지고 있고, 종교성 고양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마주치는 종교는 미션스쿨에서 드리는 예배나 교리 과목 속에 간헐 버렸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 떠나버렸고, 몇몇 종교인들의 종교적 의례로 남아버렸다. 종교는 일종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에 속해 버렸다. 그래서 종교와 교육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묻는 이 자리는 매우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교육과 종교가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종교성’ 일반에 대한 몇 가지 탐색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 글은 종교성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세세히 논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교성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진리에의 추구’, ‘영성의 추구’, ‘가난함의 추구’, ‘이웃에 대한 연민’, ‘세계에 대한 숭고함의 감정’ 등으로 일단 적시하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자 한다. 이것들은 어떤 종교든지, 그것이 종교라면 가지고 있을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진리에의 추구

많은 학교들이 내세우는 교목에 ‘진리’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적인 학교교육에서 ‘객관적’, ‘실용적’, ‘증명 가능한’, (더 세속적으로 말하면) ‘돈 되는’ 지식 등을 이야기해 왔지,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가? 도리어 다소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로 쓰이는 ‘진리’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배척해 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온 지식은 내 삶에 통일성을 부여하기보다는 도리어 더 분절시켜 온 게 사

15) 지리산자락에 있는 실상사작은학교의 2007년 졸업생들의 논문집을 보면, 8명 중 5명이 예술작품으로 졸업 과제를 준비했다. 서울 1명, 디자인 3명, 음악 1명.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라난다』, 2007년 제4회 실상사작은학교 졸업논문 및 작품집.

16) 김종희 외 씀, 앞의 책, 50쪽.

실이다. 파커 팔머(Parker Palmer)는 내 전 존재를 내걸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진리관과 아주 닮아 있다.

진리 안에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인식 대상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지성이 따로 떼어놓은 것을 새로운 삶을 통해 재결합시키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아는 것이란 혼인 언약을 맺는 것, 자신의 전부를 걸고 그 인식 대상과 약속을 맺는 것으로서, 우리의 온 정성과 관심과 선의를 가지고 맺는 언약이다. 진리 안에서 아는 것은 또한 상대에게 자신을 알도록 허락하는 것, 무릇 참된 관계에 따르기 마련인 모든 도전과 변화에 자신을 여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아는 것은 인식 대상의 삶으로 들어가며, 또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진정한 삶은 인식 주체와 그 대상을 하나로 결합시킨다. 비록 그 둘이 별개라 해도 서로 상대의 삶과 운명의 일부가 된다. …(중략)… 진리를 향한 교육이란 사실이나 이론이나 객관적인 실재에 등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에 헌신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떤 사실은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이란 관계의 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실과 우리의 관계 혹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세계와 우리의 관계는 변화될 것이다. 진리는 인식 주체에게 인식 대상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식 주체와 대상은 모두 독자적인 온전함(integrity)과 타자성(otherness)을 가지며, 한쪽이 다른 쪽으로 함몰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는 우리에게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은 서로의 삶에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반응할 것을 요구한다.

진정한 삶에서, 우리는 (전근대적 인식이 그러했듯이) 세계에 우리의 주관성을 주입하지 않으며, (근대적 인식이 그러하듯) 세계를 우리로부터 멀찍이 떼어놓고 우리 필요를 위해 조작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삶에서, 인식 주체는 다른 인격, 피조물, 사물—우리의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모든 것—과의 충실한 관계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참여자가 된다. 우리는 우리의 성실을 맹세함으로써 진리를 발견한다. 그럴 때 삶은 본디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모든 분열된 존재를 재결합시켜 준다.¹⁷⁾

파커 팔머가 ‘진리’는 ‘통합적인 의미’가 강한데, 대안학교의 주된 교육철학을 지칭하는 주요 키워드들이자 교육과정인 ‘생태교육’, ‘몸교육/영성교육’, ‘여행학습’, ‘인턴십’, ‘프로젝트 학습’ 등은 바로 배우는 주체의 삶의 태도와 ‘지식’을 접속시키려는 몸짓인 것이다. 생태교육은 세상과 인간과의 화해를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이며, 인턴십이나 프로젝트 학습은 우리의 책 속의 지식과 세상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태도이며, 몸교육은 근대적인 체육교육과 다르며, 영성과 몸성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태도인 것이다.

17) Parker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Spiritual Journey*, 이종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IVP, 2000, 91~93쪽.

2) 마음공부와 영성에의 추구

오늘날 학교교육이 자신의 영역에서 완전히 밀쳐내어 버린 것을 대안교육이 부여잡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음 공부’와 ‘영성에의 추구’이다.

서양의 가장 대표적인 대안학교인 발도르프 학교를 창시한 슈타이너는 인지학(人智學, Anthroposophie)이라는 학문을 창시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초감각계, 영적인 세계와의 소통을 대단히 주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발도르프 학교의 저학년들이 주로 하는 ‘선 그리기’(Formen)나 목공, 오이리트미(eurythmy; 슈타이너가 만든 독특한 무용)는 소우주로서의 인간이 우주와 소통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우주의 흐름과 질서에 온몸(신체, 정신, 영혼이 한데 어우러진)을 맡기며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심겨진 인간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곧 교육의 요체가 된다. 그런데, 슈타이너를 굳이 끌어들이지 않아도, 마음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교육이 이곳저곳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화랑고등학교의 이야기를 간단히 인용해 본다.

자기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 자기의 불만족과 욕구를 일기로 표현해 보면서 술, 담배를 끊는 아이가 속출했고, 마약에 취해 있던 두 아이도 마약을 끊었다. 동고동락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3박4일의 지리산 중주훈련과 텃밭 가꾸기, 해양훈련, 문화유적답사를 하며 이들은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졌다. 간질병을 지니고 자폐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입학해 자살소동을 벌이곤 했던 한 학생은 마음을 챙기면서 놀랍게도 간질병과 자폐증까지 사라졌다고 한다.

“오늘 미술 시간에 스케치를 하는데, ○○이가 ‘스케치가 이상하다’고 해 신경질이 났다. 그 때 그 마음을 보고 ‘○○이는 나보다 미술을 잘하니까 충고해 주려는 거야’라고 생각하니, 화가 오히려 감사로 돌려지는구나. 참, 마음이란 묘한 것이구나.”

한 학생의 마음 일기를 보면 예전에 자폐증에다 친구들과 코피 터지게 싸우던 그 아이라곤 믿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친구 간, 가족 간, 선생님과 갈등까지도 모두 마음일기를 써 서로 그 마음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감정해 준다.

여자 친구에 대한 마음 때문에 늘 산란했던 기운이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순간 구름이 싹 걷히는 것을 보고, 내가 저 구름과 같은 마음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에 대한 집착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썼다.¹⁸⁾

화랑고등학교뿐 아니라, 원경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등 많은 대안학교들이 마음공부를 학교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 교육의 중요한 좌표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종교계 학교만의 과제일 수 없을 것이다.

3) 구도적 삶의 추구하고 자발적 가난함

점점 세상은 속도 경쟁과 부(경제자본, 학력자본, 문화자본)의 축척에 골몰하고 있고, 교

18) 조연현, <경주 화랑고 ‘마음공부’ 통한 놀라운 변화>, 《한겨레》, 2002년 9월 17일자.

육계도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다. 대중들은 교회나 사찰에 가서 자녀에게 좋은 학벌과 안정된 직장을 달라고 기원한다. 그리고 이 속도 경쟁과 부의 축척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밤낮 몰두한다. 더 이상 교회도 사찰도 이 경쟁으로부터 탈주할 것을 신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종교성의 가장 큰 미덕인 자발적 가난과 구도적 삶은 몇몇 성직자들에게만 요구되는 덕목이 되어버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성의 뿌리는 ‘육망의 제어’에 있는데도, 이걸 기성 종교들은 그다지 설파하지 않는다. 도리어 우리 시대의 문명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을 가진 지식인·실천가들에게서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을 목도할 수 있다.¹⁹⁾

물론 이런 자발적 가난은 종래의 종교적 구도와는 조금 다르다. 이걸 21세기적 자발적 가난이라고 보면 어떨까? 몇 살까지는 무엇을 이루어놓고, 몇 살까지는 결혼을 하고 하는 식의 종래의 딱 짜인 자본이 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저항하는 삶이야말로 ‘21세기적 수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기성세대가 이런 모습을 보여 주면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게 교육의 몫일 테다.

1990년대 후반, 공교육의 갑갑함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 탈학교생들. 이들이 일구어가는 삶의 모습은 7, 8세기의 선사(禪師)들의 모습과 닮은 데가 많다. 자기 안으로부터 솟구치는 끊임없는 질문들, 안주하고 싶은 욕망과의 끊임없는 사투 이후 길 떠나기, 낯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찾기 등 이들은 21세기의 선사(禪師)이며, 21세기 모라비안 사도들이다. 그리고 니코스 카잔차키스(Nikos Kazantzakis)가 들려주는 그리스인 조르바²⁰⁾를 무척이나 닮아 있는데, 요가강사 회나의 이야기가 딱 그렇다.

죽산의 홍신자 선생을 찾아가 “춤추려면 대학 가야 해요, 유학 가야 해요?” 물었던 당당한 십대 소녀가 있었다. 재야의 요가 스승들에게 철학과 기술을 전수받으며 “중학생 때 접었던 무용가의 꿈”을 되살려 “좋은 요가 선생의 길”을 개척한 당찬 아이 “내 삶을 폭넓게 디자인하고자” 다양한 공부를 병행하는 자기주도적 평생 학생……. 요가 강사 회나의 이야기다.

회나는 초등학생 때 특별활동으로 무용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비싼 조기교육과 규격화된 몸매와 정해진 틀”을 강요하는 무용교육의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난 안 되겠구나” 하며 스스로 꿈을 접었다고 한다. 이렇듯 조숙한 아이였던 회나는 “동경하는 것이 많았다”는 중·고등학교 시절의 갈증을 좀 색다르게 풀기 시작한다.

“친구들 숙제할 때 소설 읽고 시험 전날엔 연극 보고 혼자 운동장 산책하며” 나름대로 학교생활을 낭만적으로 보냈다는 회나. 그렇게 나름대로 자아를 가꾸보려고 애를 썼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고 말해 주던 내면의 속삭임을 외면할 수 없었던단다. 회나는 담담하게 학교를 그만두었다. 자퇴 뒤의 생활은 두 축을 왕복운동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9) 지금의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고병권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다. 고병권, 〈돈 없이 살 궁리〉, 《한겨레》, 2004년 6월 13일자.

20) Nikos Kazantzakis, Vios ke Politia tu Aleksi Zorba, 이윤기 옮김, 『그리스인 조르바』, 열린책들, 2006.

그중 한 축은 독서다. 이를 테면 『학교를 넘어서』라는 책의 저자를 수소문해 만나고 그 사람에게 학력폐지운동과 민주주의학회 공부를 알게 되는 방식의 참여적 독서다. 이 시기에 “심도 있는 토론”을 알았다고 한다. 또 한 축은 “두 발과 자전거로 돌아다니기”다. 6개월 동안 병원 연구소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130만원 경비와 6만원짜리 중고자전거”를 들고 홀연 유럽 자전거 여행을 떠나는 식이다.

무작정 떠난 외국에서 회나는 “차 얻어 타고 기차역에서 자고 별별 오만 가지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한 달간을 유럽에 체류하면서 회나는 “마음의 정돈”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당시 열아홉 살이던 회나가 말하는 마음의 정돈이란 “사람이 참 존귀하다는 것,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춤을 다시 추겠다는 것” 세 가지였다.

이후 회나는 대학의 전통무용과에 진학하고 자연스럽게 유학을 갈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생각이 많았던 탓일까? “한국이라는 지역 사회에서 나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붙들려서 이 땅을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회나는 지방자치회의의 여성 평가단에 참여하고 동네 신문 배달을 했다. “내가 태어나 자란 곳”에 발을 내딛어 보자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본 회나의 작은 흔적들이었다.

회나는 지금 경방필백화점 문화센터와 송파구청 실버대학에서 나이 어린 요가 선생으로 통한다. 언니뻘과 아주머니들한테는 “자 발목을 돌립니다” 하며 곧바로 주문을 하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빙글빙글 ~ 랄라랄라 ~” 하며 재미있게 이끌 줄 아는 강사가 회나다. 이런 일은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회나가 들려 준 알뜰한 설명은 이랬다.

요가 강사를 하다 보니 “강해야 하고 참아야 하는 아버지 상 때문에 돌처럼 굳어버린 중년의 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래서 회나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그분들과 몸으로 만나서 세대간의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고,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역시 몸으로 공부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곧 있으면 어린이 요가도 시작한다는 회나는 자퇴 이후에 습관을 붙인 책읽기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무용평론을 하고 싶어서” 『미학과 비평철학』 같은 서적을 새로 읽기 시작했고 “『시장·국가·민주주의』처럼 과거에 한번은 읽었지만 소화가 덜되어” 다시 탐독하는 책도 있다. 다른 책들도 있겠다 싶어 더 물어 보았더니 “농사지으며 느리고 조용하게 사는 삶”을 준비하느라 『녹색평론』을 꼬박꼬박 정독한다고 한다.

회나에게 독서를 통한 학습은 “이익을 낳는 것이 삶의 전부라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다듬는 자기수행처럼 보였다. “바라기만 해서는 이룰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든든한 철학과 전문적인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회나는 요즘 “도약을 위한 자기 시간”을 갖느라 가급적 지인들도 만나지 않고 단출하게 지낸다고 귀띔해 준다.²¹⁾

회나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기존의 공교육에서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세상이라는 이 너른 터전 전부를 배움

21) 김종휘, 『너 행복하니?』, 산티, 2004, 82~86쪽.

터삼아, 곳곳에 숨은 고수들을 스승삼아, 풀 한 포기 하나, 헌책방에서 발견한 한 권의 책, 여행 중 만난 촌부를 도반 삼아 떠나는 여행, 이게 인생임을 가르치는 게 지금 우리 교육의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IV.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의 만남

지금까지 후기-근대교육의 구체적인 양태를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이라는 두 기둥을 중심으로 풀어보았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논의 방식은 정치한 논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징후적 독해를 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후기-근대적 교육 기획이 아직 도상에(on the way)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기-근대적 교육 기획이라는 게 근대적 교육 기획처럼 아주 정치한 논문으로, 깔끔한 문건으로 정리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글 자체가 시론적인 성격이라는 것도 ‘그 미지근함’에 한몫했을 것이다.

이제 끝으로, 이 글의 제목이기도 한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은 어떤 교육적 기획에서 만나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근대 이전 시기에 예술성과 종교성은 자주 함께 동거했다. 미켈란젤로나 다빈치의 위대한 그림들,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를 증거해 준다.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위대한 종교적 표식이었고, 위대한 예술 작품의 창조과정 자체가 종교적 구도의 과정과 동일했다. 그러나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종교성은 예술성을 억압·탄압해 왔고, 예술성은 종교성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며 종교성에 탄지를 걸기 바빴다. 신성모독적인 행위가 위대한 예술가의 표식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후기-근대적 시기에 교육의 장에서 이 두 개의 항은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대답은 긍정적이다. 위에서 우리가 하나씩 짚어온 것처럼 위대한 종교성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노력과 예술적 심오함의 추구는 후기-근대교육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종교의 상이나 예술의 상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다보탑과 석가탑이 만들어졌을 때처럼 근대 이전 시기에 종교와 예술이 아주 행복하게 동거를 했을지라도 그것은 종교와 예술에 대한 다분히 보수적이고 엘리트적인 접근방식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대와 맞지 않다.²²⁾ 끊임없이 인용되고, 회자되고, 숙고될 수 있는 전범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말이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기획 속에서 만남이 가능할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공교육제도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래서 몇몇 종교계 학교

22) 종교와 예술은 모두 신성에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하나였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다음과 같다. Gerardus van der Leeuw, *Sacred and Profane Beauty: the Holy in Art*, 윤이흠, 『종교와 예술』, 서울: 열화당, 1988. 그러나 이 책은 전통적인 ‘예술’과 ‘종교’의 개념에 대해서 그 어떤 의문도 달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극히 보수적이고, 엘리트적이다.

에서 예술적 깊이를 실천을 한다든지, 또는 특성화학교인 예능계 학교에서 종교적 고양을 실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에 근거할 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을 추구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물론, 이런 실천들에도 모종의 의미가 녹아들어가 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부르는 배움터에서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은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대안학교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공교육 형식에 몇 가지 좋은 프로그램만을 가미하는 것으로는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을 노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획일적인 공교육 체제로 말미암아 조금 특색 있는 프로그램 한두 개만 가미해도 ‘대안학교’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왜곡된 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맞서 싸우며 일구어낸 교육적 기획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요즘 한창 실험 중인 ‘동북아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청소년 여행학교’²³⁾ 같은 여행학교 모델이나 ‘따뜻한 돌봄이 있는 마을학교’²⁴⁾ 모델 같은 데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교육 공간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우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들이 교육 목표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공간을 함께 만들고, 학교 운영을 함께 해나가는 자유로운 배움의 공동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배움의 공동체는 우리 시대의 교육 화두들, 즉, 생명, 생태, 평화의 추구, 영성과 몸의 회복, 사는 곳 어디나 배움터라는 모토의 실천, 교사와 학생의 경계 허물기, 일상의 축제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돌봄이 있는 마을 공동체 추구,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적극적 끌어안기, 가진 것과 배운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기, 느낌의 미학을 실천하기, 자본주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등을 교육 실천 속에서 적극적으로 녹여내는 공동체라는 점이다. 물론, 그 교육 실천의 중심축에는 근대교육이 몰아낸 예술적 깊이와 종교성 고양의 자리가 있다.

아직, 이 실험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들의 실천이 우리 시대의 긴박한 과제와의 치열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23) 강원재, 『청소년과 동북아 8000km 여행하기』, 로크미디어, 2007. 다음의 책도 흥미롭다. 한생곤, 『길 위의 화가 한생곤의 노란 버스』, 서울: 하늘숲, 2004. 그리고 새만금 개발사업 반대 투쟁 가운데 탄생한 생명평화 마중물 여행학교의 실험도 눈여겨볼 만하다. www.yespeace.or.kr
- 24) 조한혜정 외,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서울: 또하나의문화, 2006. 위에서 말한 마을학교를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성미산학교의 실험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www.sungmisan.net

- 강원재. 『청소년과 동북아 8000km 여행하기』. 로크미디어. 2007
- 김종휘 외 씀. 『일하며 논다, 배운다: 노리단 이야기』. 민들레. 2006
- 김종휘. 『너 행복하니?』. 산티. 2004.
- 이종태, 『대안교육 이해하기』. 민들레. 2007.
- 장주. 『莊子』.
- 조한혜정 외.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 또하나의문화. 2006
- 최성욱·신기현. 「판소리 전승사에 나타난 도제교육의 원리」. 『교육원리연구』. 교육원리연구회. 2004
- Deleuze (Gilles), *Le Bergsonisme*. 김재인. 『베르그송주의』. 문학과 지성사. 1995
- Heidegger (Martin), *Was Heisst Denken?* 권순홍. 『사유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길. 2005
- Kazantzakis (Nikos), *Vios ke Politia tu Aleksi Zorba*, 이윤기 옮김. 『그리스인 조르바』. 열린책들. 2006
- Levine (Eliot), *One kid at a Time: Big Lessons from a small school*. 서울시대안교육센터. 『학교를 넘어서 학교』. 민들레. 2004
- Mercogliano (Chris), *Making It Up as We Go Along: The Story of the Albany Free School*. 공양희. 『프리스쿨』. 민들레. 2002
- Palmer (Parker), *To Know As We Are Known: Education As Spiritual Journey*. 이종태. 『가르침과 배움에의 영성』. IVP. 2000
- Polanyi (Michael), *Personal Knowledge*. 표재명 외. 『개인적 지식』. 아카넷. 2001
- Leeuw (Gerardus van der). *Sacred and Profane Beauty: the Holy in Art*, 윤이흠. 『종교와 예술』. 열화당. 1988

원고접수: 2007 5월 30일 1차심사: 6월 8일 게재승인일: 6월 19일

연구자 소개: 김종구

① 전공: 교육철학 / 소속: 서울시대안교육센터

② 관심영역: 특수교육, 대안교육, 동서양 고전의 교육학적 해석, 선불교, 영화로 읽는 교육학

③ 주요논저: 「배움의 현상학과 한국교육학의 반성」, 「가르침과 배움의 현상학 - 선불교」(경서원), 「서울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특수교육의 이면 읽기」

④ E-mail: spinozian@activelearning.or.kr

Abstract

How to Meet of Educational Project in both Aesthetics Values and Religious Exaltation

Kim, Jong Ku

The Planning Manager of Seoul Alternative Learning Community Network

In modern education system the aesthetics values and the religious exaltation was excluded. Besides we were seriously misunderstood Art and Religion in essence. So-called in the name of 'religious education' we produced a monk in specific religion and disciplined specific doctrine to students in the mission school. Likewise so-called in the name of 'art education' we produced a performer in specific genre and trained students for a specific skill. The slogan - 'Art education for all children' was vanished into thin air. Pursuing aesthetics values and religious exaltation in schooling, we have to break through modern education system. But post-modern education project is searching for new concept. Only it will be able to speak about our subject in the next. Basically, post-modern education project should be based on community that it consist of education subjects, namely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This education subjects must to decide what student to learn, how to manage school etc. It is the community that resolve contemporary education topic, namely ecological, feminine, peaceful, and co-existential questions. Of course, the aesthetics values and religious exaltation is involved contemporary education topic.

Key words : aesthetics values, religious exaltation, modern education, post-modern education, alternative education